

2026년
고1
3월 학평

2026년 시행 고1 3월 학평 국어 문학 | 델러웨이의 창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델러웨이의 창」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을 알아두면 좋을까요?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델러웨이의 창」과 관련해서는 **작품의 전개 양상을 파악하는 문제, 인물의 심리나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 <보기>의 배경지식을 작품의 내용에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어.**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선 **작품의 서술상 특징이나 작품의 세부적인 내용, 인물의 심리 및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45번 문제에서 5번 문제의 <보기>에 나오는 '시물라시옹'이랑 '시물라크르'라는 개념이 헷갈려요. 1번이나 3번 선지를 보면 '사내'가 가짜 사진을 만들어 내면서 사람들을 속였으니까, 원흉인 '사내'가 시물라크르가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사내가 시물라크르가 될 수 없고 5번이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시물라시옹'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실재인 것처럼 만드는 과정을, '시물라크르'는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독자적인 가짜 결과물을 말해. 소설 속 '사내'는 현실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야. <보기>에서 시물라크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실재인 것처럼 만드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했으니, 실존 인물인 사내는 절대 시물라크르가 될 수 없어. 그리고 델러웨이는 사내가 꾸며낸 '가상의 인물'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가짜를 진짜라고 믿고 열광해. 즉, 이 작품에서 '시물라크르'는 바로 델러웨이인거지. 이를 바탕으로 다시 선지들을 보면, 5번 선지에서 사람들이 시물라시옹을 통해, 가상의 인물인 델러웨이(시물라크르)가 마치 진짜 유명한 작가인 것처럼 생명력을 얻게 되는 모습을 짚어내고 있지?





이제 이해했어요! 선생님, 그리고 이 작품이 시험에 나온다면 어떤 문제 유형이 또 출제될 수 있을까요?

내신에서 이 작품이 출제된다면, **작품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는 문제 외에도 유사한 주제의 작품을 <보기>로 제시해서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 다른 작품들의 내용이나 특징도 함께 알아두도록 하자!



네, 감사합니다!

2026년
고1
3월 학평

2026년 시행 고1 3월 학평 국어 문학 | 델러웨이의 창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이야기를 마친 사내는 델러웨이에 대해 아는 이야기를 다 했다는 식으로 손을 소들소들 흔들며 말했다. 그리고 그는 **나**(작품 속 ‘나’의 시각으로 이야기가 서술되는 1인칭 시점.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에게도 복사한 델러웨이의 ‘미지의 창’을 한 장 주었다.

“프린터로 카피한 것이라 해도 델러웨이의 작품이라고 하니 잘 보관하세요.”

사내는 휘파람을 불면서 다시 스캐너에 정중하게 사진을 올려놓았다. 하지만 **없는 사실도 완벽하게 만들어 낸다는 그의 컴퓨터**(사내는 컴퓨터 등의 기기를 사용해 광고용 사진을 편집하는 직업을 가진 인물임. 원본 사진에 없는 사실을 덧붙여 사진을 만들.)도 ‘미지의 창’을 분석하지는 못했다. 확대를 하면 할수록 입자가 커지는 바람에 그것은 먹장구름 같은 회색의 괴물에 불과했다.

사내는 나에게 이 사진을 해독하려면 백만 달러어치가 넘는 장비가 필요하겠다고 시시껄렁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아 참, 그리고 델러웨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워낙 말도 아끼는 사람이라서 아마 그가 죽을 때까지 한 몇 마디 안 되는 말 중의 하나일 거예요. ‘창은 진실을 엿볼 수 있는 기회다. 만일 창이 없다면 사각의 벽 속에 갇혀 있는 진실을 어찌 구해 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 창을 사진기에 있는 뷰파인더를 통해서 본다.’ 어때요, 멋있지 않아요?”

사내는 다시 허공에 대고 팔을 가볍게 흔든 뒤 모니터에 집중했다.

내가 사내에게서 복사한 사진을 가지고 온 것은 상금보다도 신선한 자극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사내가 이사 온 후로 단 한 컷의 사진도 제대로 현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스물스물 오염되듯 인화되는 인화지를 보면서 대체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뿐이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사진에 찍힌 피사체나 동선을 보면서조차 마찬가지였다. 도무지 어떤 의미도 찾아지지 않는 것들뿐이었다. **델러웨이는 뷰파인더라는 창을 통해 사각의 벽 속에 있는 진실을 엿본다고 했는데, 내가 찍은 사진은 온통 거짓투성이였다.**(‘나’는 델러웨이와 달리 자신의 사진은 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괴로워함. **작품 속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찾는 문제에서 선지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나’의 심리를 파악하는 문제에서 선지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내가 찍으려는 의도는 고사하고 당시에 찍은 상황도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았다. 진실이나 실제의 모습은 차라리 뷰파인더 밖에 있던, 내가 찍으려고 마음먹던 그 순간뿐이었다.**(자기 사진에 대해 한계를 느끼는 ‘나’)

나는 자극을 위해서라도 델러웨이의 사진을 해독하고 싶었다. 그래서 델러웨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이었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델러웨이에 대한 지식이 사내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와 똑같다는 점이었다.

▶ 자신의 사진에 회의감을 느끼는 ‘나’

[중략 부분 줄거리] **델러웨이 기법**(대상을 직접 찍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나 병, 안경 등과 같이 사물에 비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보여 주는 기법)을 활용한 방송과 영화가 제작되는 등 여름 내내 델러웨이 열풍이 이어졌고, ‘나’가 가끔 사내를 찾아가 델러웨이 이야기를 하면 사내는 우울한 표정을 짓곤 했다. ‘나’는 사진 기자재를 기증하러 사진 아카데미에 갔다가 델러웨이의 사진을 보게 되고, 이후 원장과 대화를 나눈다.

“저는 당시에 델러웨이에 대해 처음 들었지만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질문한 수강생에게 델러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오히려 되물어 보았지요.(원장은 델러웨이에 대해 모르면서도 알고 있는 척함. 원장의 태도와 관련하여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델러웨이가 누구였는지 생각이 날까 해서요. 그

랬더니 수강생이 델러웨이에 대해 설명하더군요. 사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뒤로 저도 델러웨이에 대해 연구를 했고, 비단 저뿐만 아니라 강사들과 수강생 모두 **델러웨이 증후군**(델러웨이는 사내에 의해 조작된 가상의 인물이라는 것이 지문의 끝부분에 밝혀지는데, 이를 참고하면 ‘델러웨이 증후군’이란 가상의 인물에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라 할 수 있음.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혹은 거짓을 사실로 인식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에 빠졌지요. 델러웨이 증후군이라 이름 붙일 만하지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하니, 아마 그에 대한 연구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이겠지요?”

그러면서 원장은 커피로 목을 축였다. 내가 혹시 델러웨이의 사진을 구했냐고 물었지만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어디 그 사진을 쉽게 구할 수 있겠어요? 미국에 있는 동료에게까지 구해 달라고 했지만 그 친구도 사진을 구하는 것만은 두 손 들겠다는군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저희 아카데미에서 델러웨이 사진 여행을 떠나지요.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니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도대체 델러웨이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워낙 비밀에 가려진 사람이라 **구라파**(‘유럽’을 뜻함.)다, 호주다, 미국이다…… 여러 설만 난무하니까…… 델러웨이 사진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물어보았지만, 이 사람들이 끝까지 어디서 봤는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 참, 더러워서…… 자기들만 지식을 독점하겠다는 건지, 뭔지…… 원…… 델러웨이 증후군이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델러웨이 강좌를 개설한 후 실기나 실습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보다 델러웨이에 관한 토론 수업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광고 보셨죠? 델러웨이 기법으로 촬영한…….”

당시에 델러웨이에 대해 처음으로 질문했던 수강생이 누구였는지 물었지만 원장은 이름을 기억해 내지 못했다. 나는 대신에 16기생들의 사진집이 있으면 한 권 줄 수 없냐고 물었고, 원장은 흔쾌히 한 권을 캐비닛에서 꺼내 주었다. 나는 사진집을 받으면서 원장에게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 졸업생들 중에서 델러웨이 사진을 훔쳐 내 찍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았다. 원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델러웨이가 국내에 알려진 게 불과 얼마 전인데…… 그리고 탄은 작가주의 정신을 가진 학생들인데 모두가 뻔하게 아는 델러웨이 기법을 따라 해서 뭐하겠어요? 광고나 영화면 몰라도…….”

▶델러웨이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날 나는 이 층 창이 보이는 어둠 속에 앉아서 사내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가져온 사진집을 펼쳤다. 책안에 숨겨진 지폐를 찾는 것처럼 빠른 동작으로 책장을 넘기던 나는 어느 한 사진에서 시선을 멈추었다. 사내의 이름이 또박 박혀 있었고 또한 사내의 증명사진이 아래 칸에 붙어 있었다. 그리고 사내의 증명사진 위에는 사내의 작품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그것 역시 델러웨이 작품으로 알려진 사진이었다. 한 사내가 평범하게 웃고 있는 인물 사진이었고, 사진 속 남자의 눈동자를 자세히 보면 뭔가가 분명 비치고 있었다.

“가끔은 제 직업을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진실을 외면하여 거짓을 만들어 내는 게 제 직업이죠.”(사내는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음. 사내가 자신의 직업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순간 사내가 이사 온 날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사내가 집들이 때 델러웨이 사진을 보면서 왜 그렇게 풀 죽은 표정을 지었는지 그때야 알 것 같았다.

사내의 그림자가 오가는 이 층의 창이 마치 사내가 말하는 컴퓨터 같았다. 없는 사실을 실제 만들어 낸다는 커다란 컴퓨터.]([]: ‘나’는 사진 아카데미의 16기생들의 사진집에서 사내의 작품 사진이 델러웨이 작품으로 알려진 사진임을 확인하며, 사내가 델러웨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냈음을 추측함. ‘나’가 알아낸 사실과 관련하여 선지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주제의 다른 작품을 <보기>로 제시해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델러웨이는 실재하는 인물이 아닌 사내가 만들어 낸 인물임을 깨달은 ‘나’
- 박성원, 「델러웨이의 창」

핵심 정리

- 갈래: 단편 소설, 세태 소설
- 성격: 비판적, 추리적
- 주제: 거짓이 진실이 되어 버리는 현실에 대한 비판
- 특징
 - ‘나’가 델러웨이와 그의 사진의 진실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야기가 전개됨.
 - 1인칭 시점을 사용하여 서술자인 ‘나’의 내면 심리 변화와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이해와 감상

「델러웨이의 창」은 사진이라는 하나의 예술 영역을 제재로 하여 참과 거짓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현대인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사내가 만들어 낸 델러웨이라는 가공의 인물과 델러웨이의 사진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현대인과 진실이 되어 버린 거짓이 만연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여 준다.

전체 줄거리

‘나’는 신도시 주변의 야산에 이층집을 짓고 사는 독신 남자로, 사진 촬영이 취미이다. 이 층을 세 놓았는데, 컴퓨터와 스캐너로 광고용 스틸 사진을 편집하는 한 사내가 들어온다. 사내의 집들이에 초대되었다가 사진 작가 델러웨이에 대해 알게 된다. 처음 델러웨이의 사진을 보았을 때는 형편없어 보였지만, 사진을 확대해 보니 놀랍게도 스폰에 슬라브 민간인을 학살하는 정부군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사진의 테크닉과 주제 의식에서 최고의 경지를 보여 준 델러웨이 때문에 세상은 발각 뒤집혔고, 자기 사진에 대해 한계를 절감하던 ‘나’는 사진을 그만두기로 결심한다. 필요 없게 된 사진 기자재를 기증하기 위해 사진 아카데미에 간 ‘나’는 델러웨이가 실재로 존재한 적이 없는 사진작가이며, 그의 사진은 컴퓨터로 합성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나’가 왜 델러웨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냈느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사내는 집을 정리하고 ‘뚝뚝 뭉쳐 거짓을 믿는 도시’로 사라져 간다.

서지정보

저자 심연수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9738-3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6.04.06

가격 1,500원

